

사전협의보고서

보고자 : 서미향 (인)

일시	2009년 10월 28일 수요일
장소	의정부 녹양중학교
대상지역	포천, 연천, 동두천
참가인원	학생 : 38명
협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교사, 학생, 학부모 대표단이 매년 학교의 규율과 규칙 등을 위한 공청회가 학교측의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면 좋겠음• 학교의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가 모여서 하긴 하는데, 정작 그 규정의 적용대상은 모든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례에 전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거친다는 규정을 넣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매년 규칙을 바꾸는 회의를 각 대표단이 모여 하는데, 이런 모임 자체가 당일 통보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을 전교생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를 한다거나, 회의 후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 전교생이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고, 회의를 하다보면 학부모, 교사의 의견으로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 의견의 비중을 늘려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음• 학생회의 활동을 많이 제한하는 편이라 의견을 제안하면 대부분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고려하겠다고 했던 부분들도 실행되지 않았던 적이 많았으므로,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생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음• 올해 7월에 각 대표단이 모여 회의를 했었는데, 과정에서 나왔던 안건들 중 가장 화두가 되었던 것이 두발과 복장이었고, 부모님들께서도 지금의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완화시키는데 의견을 합의해서 교장선생님께 의견을 제출했었지만, 교장선생님께서 반대하셔서 없었던 일로 되어버리는 일이 있었음 단지 생활부장선생님께서 자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만 얻어냈었지, 규정으로 만들어진 결과는 없었음• 두발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 오히려 학생들 자율적으로 잘 지키고 있으며 복장도 마찬가지로• 학생회 활동이 전혀 없이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의 결정으로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데 정작 우리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건의를 해본 적은 있으나 번번히 묵살되었음 교장선생님은 걸음으로 보여지는 모습, 혹은 이웃학교 학생들과 비교만 함• 발단속이 굉장히 엄격함. 규정을 어기면 교무실에서 바리깡으로 밀어버리는 일도 있었으며, 학교에 무료로 봉사해주는 미용사들이 오기도 함	

- 하복의 실용성에 대한 불평들이 있어서 논의가 되었었는데, 교복은 그대로 두고 간편복이라는 것을 착안해 내어 여름의 경우 통일된 반바지나 티셔츠를 교복대신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음
- 여름 하복의 경우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함 남학생들은 운동을 하는 등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교복이 쉽게 찢어지곤 하고 교복 값이 비싸기 때문에 때마다 구입하기도 힘들
- 생활복 혹은 간편복 개념의 옷들을 추진하였었는데, 학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편리한 환경에서 공부하기를 바라시지만 실질적인 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면을 강조하시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고, 반드시 교복을 입어야만 단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교복이 불편하여 때로는 앞단추를 푸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단정치 못하다고 생각함
- 1학년때는 반삭, 2학년때는 단정하게 라는 규정으로 현재 잘 지켜지고 있으나 머리가 짧았다가 길게 바뀌었을때 학생들은 인권을 존중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머리 길러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
- 야간 자율학습을 말 그대로 자율화를 시켰으면 좋겠음
- 처음 몇 달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한반에 5~10명 정도가 남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남아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분위기도 좋고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자율학습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다고 해서 성적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음
- 실업계 고등학교인데 전교 상위권 학생들을 무조건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임
- 처벌을 받을 때 학생들의 입장보다는 학교나 교사들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처벌을 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음
- 학교규정은 학교 회의를 통해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의 경우 회의 자체를 하지 않음 조례에서 학교에서는 반드시 한 달에 한번, 혹은 몇 번 등의 회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만들어 실행되었으면 좋겠음

사전협의보고서

보고자 : 서미향 (인)

일시	2009년 10월 29일 목요일
장소	고양 장성중학교
대상지역	고양 파주
참가인원	학생 : 25명
협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발과 복장 규제가 폐지되었으면 함• 야간자율학습 금지되었으면 함• 핸드폰을 수거하지 말고, mp3 자유롭게 듣도록 함• 학생체벌이 심함• 복장 규제 완화• 약간의 체벌은 필요함• 학교 규칙 제정에 학생의 의견 반영• 체육시간이나 이동수업을 할때 늦어도 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음• 학교의 각종 행사에 학생들 참여시켜 줌• 소지품 검사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벌점제 폐지함• 학교 업무에 참여하는 방식은 학생들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설문지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함• 학생회나 학급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졌으니 다시 생겼으면 좋겠음• 직업교육, 체험을 활성화했으면 좋겠음• 학교 축제 및 학생들을 위한 문화 행사는 학생회 주관하에 매년 개최할 것• 학생들의 활동 동아리를 보장함• 성적이나 용모 등으로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음•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등 학생들을 위한 휴식시간을 충분히 보장함• 학생들이 스스로 의사소통하며 민주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음	

사전협의보고서

보고자: 배경내 (인)

일시	2009년 11월 2일
장소	안산 광덕중학교
대상지역	안산 시흥
참가인원	학생: 30명
협의내용	
<p><학생회 활동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학생이다. 학생회가 모양만 있고 학생회 활동 시간은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1년에 단 4번 열리고, 학급회의는 아예 열리지도 않는다. 지도교사가 학생회 회의 시간 때 학생들을 혼 내기도 한다. - 우리 학교는 학생회가 좀 활발한 편이다. 집행부 회의는 일주일에 2번, 대의원 회의는 한달에 2번 열린다. 그렇지만 학생회가 낸 의견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부장 선생님 만나서 의견을 전달해도 타당한 이유 없이 걸러진다. - 우리 학교는 학생회 활동이 전무하다. 학급회의 거의 안 열린다. 학생회 집행부가 학생부와 간담회를 갖기는 하지만, 아래로부터 의견을 전혀 모으지 않은 채 대표들끼리만 간담회를 갖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일반 학생의 의견이 아니라 대표들의 의견만 다루어진다. - 친구가 학생부 활동을 하는데, 지난번 학교 축제 때 엄청 고생했다. 쉬지도 못하고 학생들 교문밖 출입통제하고 그랬는데도 봉사점수가 거의 없었다. 학교가 시키는 일은 많고 고생을 많이 하게 하면서 대가는 별로 없다. <p><두발 규제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자율학습 때 두발검사가 이루어진다. 지도 과정에서 체벌이 일어나기도 한다. - 학생회에서 두발규정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거쳐 전교회에서 두발규정 완화를 건의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까지 이 제안이 올라가지도 않고, 학생부장 선생님이 건의 자체를 무시해버렸다. - 점심시간 중에 두발검사를 하고 벌을 주고, 심한 경우 학생부실로 불러서 미용가위로 직접 머리를 자르기도 한다. - 중학교 부회장을 맡고 있다. 남학교인데 교복 깃에 뒷머리가 닿으면 머리를 잘라야 한다. 학생회는 아예 열리지도 않는다. 교감 선생님이 새로 부임해서 9월초에 두발규정 관련해서 건의를 드렸더니, 학생회를 조만간 열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11월이 되도록 아직까지 소집조차 하지 않으셨다. - 여학생들은 머리 풀고 다녀도 뭐라 하지 않는데, 남학생들은 머리가 길면 골라내서 사실확인서까지 쓰게 한다. 그렇게 해서 기록에 남긴다. <p><상벌점제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인데, 지난해부터 상벌점제가 시범운영됐다. 시행 과정에서 학생의견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4-5월 경 대대적인 복장, 두발 검사가 매일 진행됐다. 학년별로 출입구를 하나만 열어두고 치말 길이, 고데기로 웨이브 넣은 것까지 대대적으로 검사했다. 벌점이 20점인가 넘어가면 교내봉사를 해야 하고 생활기록부에도 남는다. 상벌점제 관련해서 시정을 건의해도 묵살되는 경우 많고, 전교 학생회 통해 건의를 해도 교사들 의견만 존중된다. 	

- 치마 길이가 무릎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지난해에는 쌓인 벌점이 해가 바뀌면서 사라졌는데, 올해는 벌점을 계속 누적시켜서 남긴다. 학생만 벌점 매기지 말고 우리도 문제 있는 교사 행동에 점수 매길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벌점을 계속 주면 오기가 생겨서 오히려 말을 안 듣게 된다.
- 계속 그렇게 되면 벌점을 준다는 협박을 교사들이 자주 사용한다. 학생들에게 좀더 먹히는 경향이 있다.
- 벌점은 너무 많고 상점은 거의 없다. 수업시간 중에 잠깐 머리 풀고 있어도 벌점을 준다.
- 벌점은 구체적인데 상점은 기준이 모호하다.
- 상벌점제는 교사 기분 대로 운영된다. 교사들이 권력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
- 학생들이 규칙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규칙이 너무 엄격하다. 규칙의 필요성에 대해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 무조건 따르라고 하니깐 그런 거다.
- 학교마다 규칙 기준이 너무 다르다. 다른 학교는 널널한데 우리 학교는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질투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강제 수업 관련>

- 우리 중학교는 방과후 특성화 학교다. 방과 후 5시까지 수업하고, 상회 7%는 원하는 경우 저녁 7시까지 자습한다. 더 원하면 9시까지도 남아있다. 규정이 엄청 엄격하다.
- 우리 학교는 공부를 못해서 방과후 특성화학교로 지정된 곳이다. 성적 우수한 학생들은 더 남기고 더 공부 시킨다. 8-9교시까지.
- 우리 학교에서는 전국적으로 7,8교시는 무조건 다 한다고 얘기하면서 방과후 수업을 강제 실시했다. 수요일만 빼고 모두 7-8교시다. 그런데 우리 옆 학교는 아니더라.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다.
- 7교시 하면서 설문조사를 하기는 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무조건 동그라미 치라고 했다.
- 처음 방과후 학교 하면서는 원하는 사람만 시작했다. 그런데 일단 방과후 학교 시작하면, 방학 때도 무조건 해야 한다. 방과후 학생들 대상으로 두발 검사도 한다. 머리 자르라고 협박하고 때리고 부모님에게 전화도 한다.
- 밤 9시까지 학교에 남아 방과후 학교를 하고 있다. 끝나기 10분 전에 친구랑 굴을 까서 먹었는데, 방과후 선생님한테 걸렸다. 굴냄새 난다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까놓은 굴은 마르니까 그냥 먹었다. 그러니까 복도에 세워두고 벌을 줬다. 쳐다 보니까 예의 없다고 하면서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했다.

<체벌, 언어폭력 관련>

- 우리 학교는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하면 책상 위에 꿇어 앉아 두꺼운 몽둥이로 체벌하는 선생님이 있다. 너무 졸립게 수업을 하니깐 졸거나 딴 짓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때린다. 몇몇 선생님들이 체벌을 주도한다.
- 언어 폭력도 심각하다. 쌍소리 하고 애들 하는 욕 그대로 다 하는 교사들도 있다. 그런 말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쁘다.

<기타>

- 종례가 너무 늦게 끝난다. 선생님 기다리면서 아이들이 떠들고 있으면, 시끄럽다고 더 늦게 끝낸다. 종례 끝나면 학교 청소도 해야 하고 청소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불공평하다.

사전협의보고서

보고자: 배경내 (인)

일시	2009년 11월 3일
장소	안양 비산중학교
대상지역	안양 과천
참가인원	학생 : 25명
협의내용	
<p>* 학생들 사이에 논쟁이 있거나 의견이 오고간 것은 ☞로 표시</p> <p><학생생활규정, 학생회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생이다. 두발규정 관련해서 대의원대회 때 논의해서 학생부에 제출해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한다. (*재학 중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전체 중 6명이 손을 들었고 규정이 강화된 경우가 절반이었음). - 여중학교다. 학교에서 용의복장이 단정치 못한 학생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학생회에서 논의하려고 시켰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학생회가 엄청 욕을 얻어먹었다. 선생님들이 교복 치마 길이를 검사해서 싸인을 해준다. 치마단 뒤집어서 안쪽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치마를 3개씩 갖고 다니기도 한다. 검사를 할 때는 치맛단 뒤집어서 검사한다. 길이 규정 어기면 복도에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한다. - 중학교인데, 지난해 학생회 선거할 때 교감, 학생부장 쌤들 허락 받고 두발규정 완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런데 올해 학생부장이랑 교감 쌤이 바뀌면서 두발 규정을 오히려 강화했다. 그래서 공약을 아예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학생회 선거 때 공약을 미리 검사받는다. - 우리 학교는 신설된 지 얼마 안 됐다. 1회 졸업생 선배들이 노력해서 두발, 복장 규정이 상당히 완화됐다. - 두발 규정이 완화되면 날라리 학교라는 딱지가 붙는다. 선입견이다. - 두발자유는 기본권인데, 학교에서 두발 제한을 하면서 제시하는 이유는 너무나 애매하다. 수업 분위기나 뭐 그런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들만 매번 되풀이한다. 기본권을 제한할 만한 이유가 못된다. - 학생회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학생회 회의록도 교사가 작성하고, 회의들을 모두 제한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결정이 이루어져도 교장 선생님 선에서 다 잘린다. 그래서 학생회에서 학생들 서명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학생회장, 부회장을 징계하겠다고 했다. 반성문도 쓰라고 하고.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서니까 징계는 철회됐는데. 서명용지도 다 빼앗겼다. 징계가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서명한 것만으로도 그렇게 학교에서 나오니까 제대로 의견을 내기가 힘들다. 학생회장단이 동문회장, 이사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교장 선생님 허락 없이 보낸 것도 교칙 위반이라고 크게 혼났다. 그런데 교장 라인을 거쳐야 한다는 건 교칙 조항 어디에도 없다. - 학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일반 학생들이 잘 모른다. 대의원대회도 자주 열리지 않는다. 중학교 때는 대의원대회 하는 모습을 공개 방송 했었는데, 회의 과정이 공개되니까 학생들 관심도 높아지고 좋더라. - 우리 고등학교에서 CCTV 설치할 때 학생, 교직원 등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었다. 학생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과반수 이상이 반대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재투표를 요구하더라. 2차 투표에서도 압도적으로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각반 반장까지 	

모두 소집해서 이해를 구하는 척 하면서 명령하듯이 말하고 3차 투표를 붙였다. 결국 찬성표가 2표 더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만족하시더라. 학생들 의견 수렴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형식적이다. 학교 뜻을 관철하는 과정 아닌가.

- 학생들이 철없는 의견을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
 - ☞ 학생들은 무조건 해주세요 하고, 교사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다. 합의점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 ☞ 소통이 중요하다. 대의원들은 학교측이 제시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납득을 하더라도 일반 학생들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불만이 쌓이는 것 아닐까. 학생회 회의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게 더 소통의 장벽이 되는 것 아닐까.
 - ☞ 임원들이 그렇게 철 없는 의견 내는 경우 본 적 없다. 무책임하지 않다.
 - ☞ 학생들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한다. 그래야 더 책임감 있는 의견도 낸다.
- 학교생활규정이 너무 애매하다.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의 뜻이 뭔가. 이해가 안 된다.

<체벌, 언어폭력 관련>

- 우리 학교에서는 손찌검이 심하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교사도 있다. 체벌 관련 규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안 지켜진다. 도구 제한도 없고, 이유를 설명해주지도 않는다.
- 두발 검사 하는 과정에서 체벌이 심하게 일어난다. 학생부장 선생님 포함해서 열몇 명이 심하게 때린다.
- 여중이라 때리는 일은 많지 않지만, 언어폭력이 심하다. 인격을 비하한다거나 가정을 들먹인다거나.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차라리 때리라고 말할 정도다.

<강제수업 관련>

- 고등학교인데 1학년의 90%가 야간자율학습 참여하고 있다. 밤 10시까지 학교에 있어야 하고, 희망자는 11시까지 있다. 일본 영화를 보다 보니 일본 학생들은 해가 떠있을 때 학교하더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네덜란드인가에서는 1년에 1400시간 공부한다고 너무 많다고 올해 초에 학생들이 시위를 하던데... 우리는 학교에 있는 시간이 하루에 14시간이다. 그럼 1년이면 얼마인가? 학기 초에 학원가는 거나 정기적으로 빠져야 하는 학생들 상황을 파악하기는 하지만, 강제적으로 야자에 참여해야 한다. 학교 방침으로.

<기타>

- 학생회에서 담배 피는 선생님들 때문에 냄새가 심해서 힘들다고 누가 건의를 했다. 그러니까 학생부장 선생님이 그 의견 낸 학생이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더라. 결국 그 학생을 알아내서 나무라듯이 학생이 선생님한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설득하더라. 너무 과민 반응이다.
- 상벌점제가 매우 심하다. 개정 의견을 내면 설득하는 척하면서 학생들 의견을 무산시킨다. 벌점이 너무 심해서 작은 실수도 벌점이 매겨진다. 상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 학생인권이라고 하면서 규정을 완화하면 수업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을까?
 - ☞ 학생들 엄하게 잡는다고 수업분위기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 편견이 심한 것 같다.
- 반마다 왕따들이 한둘 씩 꼭 있다. 얼굴이 맘에 안 든다 뭐 그런 이유로. 수행평가를 대신해달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다. 담임이 알아도 별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 ☞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그런 식으로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거 아닐까.
- 한 친구가 패딩 조끼를 샀다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압수 당했다. 빨간색이라는 이유로. 너무 자의적이다. 옷까지 빼앗은 건 너무하다. 어떨 때는 봐주고, 어떨 때는 빼앗고. 공식적인 규정이 아니라 교사의 말이 규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

사전협의보고서

보고자: 박진 (인)

일시	2009. 10. 28.(수)
장소	용인 성지중학교
대상지역	용인, 평택, 안성
참가인원	학생 : 30명
협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별 이동수업(우열교육), 성적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교육의 목표에 합당한 실용성 있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현재의 암기교육이 아닌) • 학생들이 학교를 이룰 수 있도록, 자율적 힘을 줄 수 있는 학생회가 되어야 한다.(교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장이 공약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한다) • 인권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교육과정 등이 편성되어야 한다. • 선도교정 등 :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유설명근거가 필요하고 징계위 등에서 소명절차를 분명히 해야한다. • 야간자율학습은 서울은 자율인데 경기도만 강제다. 야자를 자율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 담배를 피운 경우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벌보다, 교육적 조치를 취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단순히 금연학교 보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 소지품 검사는 학생동의 없이 아무 때나 하면 안되고, 적어도 여학생 소지품은 여교사가 해야 한다. • 장애학생들을 위한 보다 나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한반에서 그냥 수업만 받는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 실용성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토론식 교육이라거나, 이론 교육이 아닌 참여형 교육, 논리적 교육통해서 창의력교육을 키워야 한다. 현장체험 실습교육위주로 교육이 바뀌어야 학벌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 •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의 경우, 제보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청내에 비공개 홈페이지 등을 구성해서 비밀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학교운영위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꼭 제도화해야 하고, 학생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입시환경을 바꾸어야 한다. 입시뿐만아니라 직업교육을 학교.지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두발을 완화하거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80년대 성인장발, 미니스커트 단속과 같은 일이 현재 학교에서 벌어지는 것은 상실이 아니다. 아름다운 것에 대한 욕구는 학생에게도 똑같이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 학생차별을 통해서 반발심을 갖게 하는 교육을 지양해야 한다. 교사의 개인적인 태도 문제들의 해결이 필요하다.
- 학생부와 학생간의 소통이 단절되었다. 두발단속 심각하고 교복길이 제한도 강압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심지어 교복길이 제한이 무원칙하게 진행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학생은 어쩔것인가. 원칙없는(강압적이고 주관적인) 단속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 교복가격의 문제 : 성장에 따른 문제가 있다. 공동구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 두발규제 등 규제는 통제를 통해서만 통제를 배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못한 결과다. 두발규제를 없애야 한다.
- 진학에도 학생의 선택권보다는 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교사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
- 상담조차 하지 않으려는 교사의 무책임한 행동을 규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평가제가 필요하다. 학생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 교사들도 학생복장과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 왜 교사들은 스킨니진을 입고 화장을 하고 파마를 하는가, 교복을 동등하게 입어야 한다.

사전협의보고서

보고자: 김혜래 (인)

일시	2009. 10. 30. 금요일
장소	수원북중학교
대상지역	수원 오산 화성
참가인원	학생 31명
협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발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두발규제의 목적은 학생들의 행동을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는 데 있다. 교칙이 학생은 무조건 언행과 태도가 단정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발언의 자유조차 주지 않으며, 학생회에서 학생 안전에 대한 의견을 내도 무시당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 상황에서 인권조례 제정은 이러한 학교의 현실을 무시한 채 앞서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자료집 10문10답 4번-6번을 보면 많은 선생님들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이 반비례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은 정비례관계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사의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협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교칙 제정이나 학교 행사와 관련된 결정에 학생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학교가 갖추도록 조례에서 요구해야 한다. 학생들의 축제조차 교사들이 결정하고 따르라고 한다. 학생회의 의견이 학교장까지 전달되지도 않는다. 학생회는 형식적인 조직에 불과하다.• 학교내에 학습활동 공간 외에 학생들이 휴식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에 학생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교내에 학생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대화를 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셔야 한다.• 무조건 하루 종일 수업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일찍부터 적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내 체벌, 징계, 벌점 등이 심하다. 최소한의 인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실수를 할 때 맞아 마땅하다고 하면서 때린다. 하지만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실수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어야 한다.• 체벌은 올바른 지도를 위해 필요하기도 하다.• 체벌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교육을 너무 쉽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우리의 판단력과 자율성을 더욱 저하시킨다.	